

미래를 기억... 현재를 구원하려는 문학적 실천



김형중 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를 이룰 것으로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김형중 평론가다. 김형중 평론가는 201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으로 등단. 아직 데뷔가 10년이 안된, 평론분야 등단이 어려운 만큼 중고 신인이라 할 수도 있다. 대학원에서 공부도 했고, 계간 '문학들'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직 등단 10년이 안 지났지만 그의 글쓰기 때문 이자 신춘문예 평론 분야를 운영하는 신문사가 많지 않은 지역의 여건 때문인지 가끔 평론 심사에도 불려다닌다.

광남일보 신춘문예 평론 심사위원으로 두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그의 평론 깊이와 글쓰기에 혀를 내둘린 사람들은 그를 '될성 심은 떡잎'으로 보는 듯하다. 평론 심사에 대해 의미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그가 첫 비평집 '미래 기억 연습'을 문학들 비평선 5번째 권으로 출간했다.

이 비평집은 한국문학이 과거 기억의 '흔적'을 추적, 현재를 독해하는 일이 현재의 절망에서 미래를 구원하기 위한 시간의 복습이었다는 점을 간파하지 않으면서 전개된다.

우선 "다음 세기에 도래할 절망을 미리 목도한" 니체, "과거를 역사의 연속체 속에서 폭파"해 현재

평론가 김형중 첫 비평집 '미래 기억 연습' 출간 작품 통해 폭력성·절망 조망...문학적 실천 탐색 제5부 구성...작가들 개념 규정·다양한 작품 분석

를 구원하고자 한 번이던, 차별과 혐오를 무기 삼아 구축하는 죽음-정치적 지옥도를 바라보며 "누구와 무엇과 우리는 동시대인인가?"를 물었던 아감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2020년대 한국문학 작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먼저 1부 '소문자 존재들'은 세계의 폭력성과 관습적 감각을 관통하면서 새로운 관계성의 지점으로 나아가는 '우리는-(모두)-여기에-함께-있지만-하나가-아니고-똑같지 않은' 연약한 주체들의 흔적을 모았다.

성혜나와 강화길을 비롯해 김지연, 백수린, 최은미, 서이제, 한유주, 정소현 등의 글을 읽고 썼다. 이들이 새롭게 구축하는 공동체는 여전히 불확실한 삶일지언정 기존의 배타적 공동체를 파헤치고 그 폭력성을 노출시키면서, 관습적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복수종의 관계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 2부 '남쪽 도시에서'에는 김숨과 김연수, 김지연, 최인훈, 박솔피, 한정현, 공선옥, 김준태, 나

종영 등의 소설과 시를 읽고 썼다. '절대적 무권력 상태'로 출현했기에 권력의 불능과 무능을 노출시켰던 도시이자 이제는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인 광주에 얽힌 글들을 한데 엮었다.

3부 '징후와 성좌들'은 서바이벌의 생존 논리가 생산한 경제선 외부로 재배치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묶었다. 각각 다른 궤도를 형성하는 작품들을 읽으면서도 생존, 혐오, 차별 등에 얽힌 생각들이 유사성을 띠고 있다. 정용준과 김솔, 이민진, 김애란, 편혜영, 최유안, 장강명, 김유담, 박서련의 글을 읽고 썼다.

4부와 5부의 글들은 시에 대한 비평들이다. 계간 '시로 여는 세상'과 '제25회 젊은평론가상 수상작품집'에 실린 '실어증을 앓는 언어들'을 첫머리에 놓았다.

4부 '어둠의 궤도'에는 계간지 '서정시학'과 '포엠 피플'에 발표된 글들을, 5부 '월출'에는 계간지 'POSITION'에 발표된 글들을 한데 묶었다. 박삼재와 이장욱, 장석주, 차호지, 손미, 김내영, 하린, 김

현, 장석남, 김상혁, 김은지, 전수오, 김석영, 김준현, 김미소, 이용훈, 황유원 등의 시집을 읽고 썼다.

이 비평집은 한국문학 작품을 통해 세계의 폭력성과 절망을 읽어 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 미래를 기억하고 현재를 구원하려는 문학적 실천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저자의 겸허함으로 인해 이 비평집에 담긴 언어들의 무게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평론가는 한국문학 작가들을 존재들에게 목소리와 이름, 뒷을 부여하는 사람이거나 미래의 회상으로 현재를 구원할 사람들,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문자-인간들의 궤도를 따라 누증(累增)되면서 세계의 폭력성을 노출시키는 일을 사람들로 규정한다.

그는 책머리글을 통해 "나에게 언어의 고행을 마다하지 않은 한국문학의 작가들은 세계의 그늘진 장소에서 성원권을 박탈당한 존재들에게 목소리를 입히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재 뒤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읽은 작품들은 미래를 기억하기 위한 현재 한국문학의 최대치임에도 분명하지만 이 책의 글들이 그 지점에 닿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세계의 착란과 착시를 응시하고 폭로하기 위해 겪었을 그 수많은 시간을, 그 밤을 알린 쓸쓸한 고요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힘겹게 도달한 형식을, 과연 나의 문장이 닿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뿐이다"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1929년 항일 소녀들 '뜨거운 함성' 상기 시립극단 정기공연, 내달 7~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이 제26회 정기공연으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소녀들'을 선보인다.

연극 '소녀들'(이난영 작, 김지훈 연출)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 이면에 존재했던 평범한 여학생들에 주목한다. 광주여고보 비밀 독서모임 '소녀회'가 그 주인공이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일제 탄압에 맞서 백지동맹 등 항일 운동에 앞장선 실화를 바탕으로 재창작했다. 극은 유복한 양조장 집 딸이자 문학 소녀였던 '연선'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핏크빛 낭만을 꿈꾸던 연선이 친일파 아버지 밑에서 시대의 민낯을 마주하고, '소녀회' 친구들과 함께 주체적인 자각을 이뤄가는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무대에서는 당시 일제가 금기시했던 '금수회 의복'과 '을지문덕', '만세전' 등 이른바 금서들이 등장한다. 이 책들은 소녀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넘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작은 촛불이자 저항의 도구가 된다. 또한 '데미안'과 '돈키호테' 등 고전 문학은 주인공 연선이 부모로부터 명량한 용기를 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극의 재미와 깊이를 더한다.

이번 공연은 '제3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을 전막 공연으로 첫선을 보이는 자리다. 지난해 총 여섯 차례 낭독공연과 세밀한 각색 과정을 거치며 대본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무대는 광주 연극계를 대표하는 실력과 배우들이 채운다. 고영욱, 김세희, 김형욱, 노현지, 박영국, 오창선, 이영덕, 이유진, 이종경, 이지은, 정은지, 정일행, 조아라, 차상경, 한중고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힘을 맞춰 1929년 당시의 뜨거웠던 에너지를 재현한다.

이번 공연에는 특별한 관객들이 찾아온다. 극의 실제 배경인 광주여고보, 현 전남여고 학생들이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 내년 개교 100주년을 앞둔 전남여고에서는 선배들의 뜨거웠던 삶을 97년 뒤의 후배들이 객석에서 마주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할 전망이다.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복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당한 권력과 탄압에 맞서 스스로 깨어나는 '자각'의 가치를 묻는다. 김지훈 연출은 "주체적인 여성의 연대는 마치 지난 비상계엄 당시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연대했던 시민들의 모습과도 닮았다"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5월 7일 오후 7시 30분, 8일 오후 2시와 7시 30분, 9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등 총 5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책을 직접하면 입장료를 할인해준다. 입장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무대 위 되살아난 '흥도' 세대 있다

가정의 달, ACC서 펼쳐지는 고전 무대
야문화전당재단, 내달 7~10일 예술극장

무대 위에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놓인다. 빛바랜 사랑과 뒤늦은 후회, 끝내 닿지 못한 마음. 익숙한 서사는 여백을 읽고, 다른 호흡으로 다시 살아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연극 '흥도'를 선보인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이번 공연은 부모 세대의 기억과 자녀 세대의 감정을 한 자리로 불러낸다.

'흥도'는 1930년대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토대로 한

다. 오빠의 학업을 위해 기생이 된 흥도와 명문가 자제 광호의 사랑, 그리고 오

해와 이별로 이어지는 비극을 따라간다. 단선적인 줄거리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안의 감정은 지금도 낯설지 않다. 사랑과 회상, 그리고 선택의 무게가 시간의 간극을 건너 관객 앞에 놓인다.

연출은 고선웅이 맡았다. 특유의 리듬감 있는 대사와 간결한 장면 전환으로 신파극의 과잉을 덜어낸다. 감정은 눌러 담고, 대신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 웃음과 비극이 교차하는 순간, 관객은 이야

기에 결말을 알면서도 다시 감정에 머문다. 비워내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소품과 장면을 최소화하고, 여백을 남긴다. 그 빈자리에 감정이 또렷해 진

다. 한국적 미감이 강조된 공간 위에 디자이너 김영진의 한복 의상이 더해지며 시각적 밀도도 채운다. 절제된 색과 선은 '한(恨)'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끌어올린다.

배우들의 조화로운 눈길을 끈다. 초연의 기억을 품은 예지원을 비롯해 최하윤, 박하선이 날카로운 무대에 오른다. 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결의 '흥도'가 만들어진다. 감정의 농도와 호흡이 배우마다 다르게 쌓인다. 광호의 아버지 역은 정보석이 맡아 극의 중심을 단단히 붙든다.

작품은 이미 여러 차례 수상으로 완성도를 인정 받았다. 동아연극상과 예술의전당 예술대상에서 주요 부문을 수상하며 무대의 힘을 입증했다. 이번 공연은 ACC재단 유튜브 파트너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의전당에 이어 광주 관객과 만난다.

익숙한 이야기의 끝을 알고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 무대는 과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감정으로 다시 읽어낸다. 부모에게는 지나는 시간을, 자녀에게는 처음 만나는 감정을 건넨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마주하는 시간이다.

공연은 7~8일 오후 7시 30분, 9~1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라일타타임은 100분. 인터미션 없이 이어진다. 좌석은 466석 규모다.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



문화도시 이슈포럼... 조성사업 20년 성과 진단

야문화도시지원포럼, 28일 DJ센터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 이하 지원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년 성과 진단'을 주제로 제29차 문화도시 이슈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첫발을 내디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세 차례의 종합계획 수정을 거치며 이른바 3.0시대까지 진화해 왔다. 이번 포럼은 2006년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간 추진돼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광주

이런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사업 간 연계 부족 등 구조적 쟁점을 짚고, 재정 안정성 확보, 문화권별 연계·확산, 향후 추진체계 정비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문화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한다.

기조발제는 김광욱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이 맡아 4대 핵심과제별 성과와 한계를 종합 진단한다. ACC의 문화 거점 정착과 도시 전반의 양적 성장을 성과로 짚는 한편, 재정 자립도 문제와 대중 콘텐츠 부족 등 구조적 한계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후 지원포럼 류재한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관광 분야(정성구 UCL도시문화연구소 대표), 문화콘텐츠 산업(백정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본부장), 조성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김기관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순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문의 062-611-2043.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점자교원 양성기관에 전국 5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교원 양성기관으로 단국대 평생교육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점자교원 양성기관들은 지난해 2월에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 두 단계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점자교원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춘 뒤 점자교원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점자교원 1급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 점자교육 경력을 쌓으면 취득할 수 있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는 국립국어원이 실시하며, 심사 점수는 오는 9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극 '소녀들' 무대에 오를 배우들 모습